

감염증으로부터 몸을 지키다

AIDS, SARS 등 세계적 규모로 발생하여 인류의 커다란 희생을 치르게 한 현대의 감염증의 병원체에 대한 갖가지 연구는 인류역사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변함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의 감염증에 대한 기초지식은 감염증 발병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일본 '노동위생'지를 참고하여 소개한다. <편집실>

치료법의 변천

1995년도 WHO 보고에서는 전 세계 사망자의 약 1/3인 1,730만명이 감염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이 1위이며 그 다음은 설사, 결핵, 말라리아의 순인데, 우려되는 점은 이 감염증에 의한 사망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병원체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화학 요법이라고 하는데, 유기비소화합물인 sulfuracid가 아프리카 수면병(african trypanosomiasis)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그 후에 매독에도 효과가 있는 점을 알게 되어 그 치료에도 사용되어 왔다.

1928년에 Fleming이 푸른곰팡이의 배양액 중 페니실린이 항균 작용을 지닌 점을 발견한 후로 그 후 항생 물질은 현재까지 약 200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1976년에 의사 초년병인 제너는 '소 천연두에 걸린 사람은 사람의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고 전해지는 옛 사람들의 말을 23명의 사람들에게서 실증하였고, 면역요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이 종두의 시작이었으며, 이

종두가 계속됨에 따라서 발생환자수가 감소하였고, 1977년의 소말리아 환자를 최후로 천연두는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WHO는 그 3년 후에 박멸을 선언하였다. 유사 이래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특정 병원체를 처음으로 박멸하게 된 것이다. 이 천연두 이외에도 백신 요법은 여러 가지 감염증에 도입되어 환자수의 감소나 증상의 경감에 큰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물결

설파제나 항생물질의 개발과 사용, 백신의 발견은 '20세기의 기적'이다. 그 결과 '감염증에 걸렸어도 죽지 않는다'는 안전신화가 생겨났고 '감염증 시대는 끝났다'는 속단이 생겼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병원체에 의한 신흥감염증이나 이전부터 있었던 병원체라 해도 약제 내성을 띠는 재발 감염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 이외에도 돌연변이로 병원성이 강해진 병원체의 범람이 주목되고 있다.

정말 항생물질이나 백신이 감염증에 위력이 있었던 것일까. 미국 감염증학 잡지에 게재된

논문(EH.Kaas, J Infect Dis, 123;110-4, 1971)은 감염증에 권위가 있는 임상전문가나 연구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에 따르면 폐결핵, 15세 이하의 소아 성홍열과 백일해의 사망률은 1870-80년경을 정점으로 화학요법이나 백신의 사용에 관계없이 감소하였다. 화학요법이나 백신의 사용이 그 감소 경향의 끝을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딕슨은 「근대의학의 벽」에서 '전염병이 옛날의 인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야생동물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핵가족제로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된 점, 인구가 희박한 점, 영양이 좋아진 점.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수렵민이 비교적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된 듯 하다. 그들은 특효약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경문명, 그리고 공업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모든 것이 변하였다'고 하고, '전염병에 걸렸을 때의 최선의 방법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리하였는데, 화학요법이나 백신에 의존한 현대의학이 감염증의 사망률에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면 딕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반면에 딕슨은 '약이나 백신에 의존하여', '의사가 고친다'고 하는 현대의 풍조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고친다'고 하는 기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

딕슨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지구상에 더욱 흠어져 살게 된다면 감염증은 그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에 따라서 도시에 집중되어 거주한다. 그리고 문명은 물질적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 결과 무질서한 개발에 의해서 자신들을 감염증에 걸리기 쉽도록 만들었고 문명은 또한 대량 소비를 불러왔다.

도시에서는 폐기물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이 생기고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확산된 화학물질은 직접 독성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감염증의 방어에 필요한 면역력을 저하시켰다. 태아기의 저농도의 다이옥신 피폭은 장래의 면역시스템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것은 환경오염에 의해서 인류가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진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감염증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감염증에 걸리지 않는 기초체력과 면역력을 몸에 키울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 적당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가 없도록 규칙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는 일이다. 또 각자가 환경오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감염증에 걸렸을 경우 신체의 휴식을 취하여 긴장을 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39도까지의 발열이 있으면 자신의 방어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해열제 등을 복용하는 안이한 치료를 하지 말고 의사와 함께 '스스로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마지막 회)